

논문 2009-6-29

모바일 통신기기 사용이 노인의 심리적 안정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ffects of Mobile Communicational Devices on the Emotional Stability of the Elder Person

김수연*, 채명신**, 정창덕***, 홍유식****

Soo-Yeoun Kim, Myung-Sin Choi, Chang-Duk Chung, You-Sik Hong

요 약 본 연구는 고령자의 심리적 안정감에 미치는 요인 중에 정보통신기기를 중심으로 한 연구이다. 특히 정보통신기기에 대한 인식 및 경험 상태를 알아보고자 고령층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모바일 기기와 인터넷 기술 서비스를 세분화하여 구체적으로 실증함으로써 정보통신기기의 사용이 고령자의 심리적 안정감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정보화에 대한 노출이나 관심이 어느 정도 있어야 실질적인 의견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55세 이상의 서울에 거주하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편의표집 하였다. t검증결과 유선인터넷과 모바일기기를 사용하는 그룹은 사용하지 않는 그룹에 비하여 우울감과 고독감은 낮아지고 자아존중감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용 능력에 있어서 숙련도가 높은 그룹의 고령자는 숙련도가 낮은 그룹보다 우울감 및 고독감은 낮아지고 자아존중감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This study is focused on examining the us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among the factors that contribute to the psychological stability of the aged. To identify the appreciation and experienc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we have itemized mobile technology and internet technology which are the most broadly utilized technologies by the elderly, and suggested a methodology to measure the effects tha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have on their psychological stability. We surveyed more than 100 people over 55 year old in Seoul. The findings of the study showed that the group of users who use wired internet and mobile technology are less depressed and have more self-esteem than the group of non-users. It was also shown that the more skilled they are at utilizing the technology, the less feelings of depression and loneliness, and the more self-esteem they have.

Key Words : digital technology, psychological stability, depression, self-esteem, loneliness

I. 서 론

*21세기의 큰 사회적 화두인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한국사회는 이미 고령화 사회에 이르렀고, 고령화 현상과 더불어 21세기 주류를 형성하는 사회변화 중

의 하나가 바로 정보기술이다. 정보통신기술이 핵심인 지식정보사회는 어디서든지 공평하게 정보를 접근해야 하나 정보부자와 정보빈자 간의 정보격차 및 정보 불평등이라는 문제를 발생시키고, 지역 및 세대 간의 정보격차(digital divide)를 심화시키고 있다[1-3]. 이러한 정보격차는 정보통신기기를 습득하지 못한 노인들에게 사회적 소외감과 고립감을 갖게 하며, 심리적으로도 불안정감을 느끼게 하여 우울증의 위험요인으로서 심각한 사회

*정회원, 서울벤처대학교 경영학과
**정회원, 서울벤처대학교 경영학과 (교신저자)
***정회원, 고려대학교 컴퓨터정보학과
****중신회원, 상지대학교 컴퓨터정보공학부
접수일자 2009.10.19, 수정일자 2009.11.17

문제가 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4-7]. 인터넷의 보급이 늘어나면서 인터넷상에서 정보를 얻고 취미와 관심사를 공유하며, 서로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하여준다[8-10]. 본 논문에서는 정보통신기기가 고령자들의 심리적 안정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하여 검증하고자 한다. 특히, 고령자들이 다양하게 정보통신기기를 사용하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정보통신기기로 대표되는 유선인터넷과 모바일기기의 사용여부가 그리고 그 기술의 숙련도에 따라 고령자의 심리적 안정에 미치는 영향이 차이가 나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정보통신기술은 정보의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수신 등 정보 유통의 모든 과정에 사용되는 기술수단을 총체적으로 표현하는 넓은 의미의 개념으로 기술적으로 볼 때, 반도체와 디지털기술과 통신기술이 합쳐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실시한 “2007년 상반기 정보화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60세 이상 노인의 인터넷 이용률은 17.4%로 나타났다. 이는 노인 10명 가운데 8명 이상이 아직 정보화에서 소외돼 있는 실정으로 실제로 젊은 층에 비해 장·노년층의 정보화 수준은 상당히 뒤떨어져 있다. 그러나 인터넷 확산과 정보시스템을 일상생활에서 활용하는 고령자들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아래의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1~2004년에 높은 상승세를 보였던 30대 세그먼트가 2005년을 기점으로 성장이 종료되면서 30대 이하의 하강 트렌드를 보여주는 반면 50대 이상은 40대보다 더 빠른 성장속도를 보이면서 2007년 상반기에 377만명 규모까지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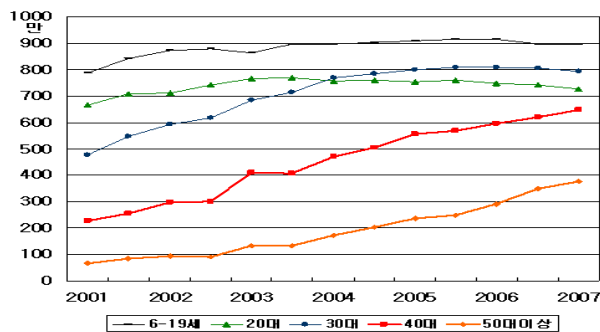


그림 1. 인터넷 이용자수의 연령별 트렌드
Fig. 1. The Numerical Trend of Internet Users by Age

III. 연구 설계 및 방법론

본 논문의 측정도구는 사회인구학적 배경(10문항), 무선인터넷과 모바일기기 경험도(소유실태, 사용빈도, 사용년도 사용범위) 및 고령자의 심리적 안정감을 측정하기 위한 우울감 항목(14문항), 자아존중감 항목(10문항), 고독감 항목(4문항) 등으로 구성하였다. 심리적 안정감 측정항목은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고령자들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성별, 연령, 종교, 교육수준, 결혼상태, 한달수입, 건강상태, 동거가족, 자녀연락빈도 등으로 총 9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고령자의 심리적 안정감의 인식에 관한 측정은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존의 측정도구를 바탕으로 사용하였는데, 본 연구 주제에 맞추어 약간의 변형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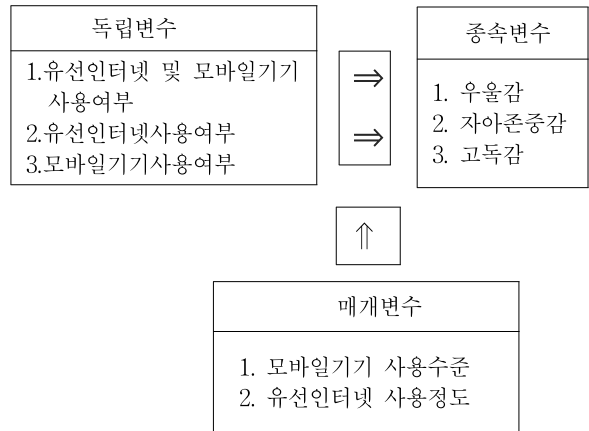


그림 2. 연구의 개념적 모형
Fig. 2. Conceptual Model of the Study

표 1. 심리적 안정감 측정도구
Table 1. The Measuring Tool for Emotional Stability

측정변수	측정항목	문항수	참고문헌
우울감	현재 생활만족도 및 가치관의 심리적 상태 정도	14	Sheikh and Yesavage (1986)
	사회적으로 느끼는 심리적인 상태 정도		
	건강 및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에 대한 심리적 상태 정도		
고독감	사회적 고립감의 심리적 상태 정도	10	송대현,윤가현 (1989)
	가치관의 심리적 상태 정도		
자아존중감	가치관 및 존중감의 심리적 상태 정도	8	전병제 (1974)
	만족도 및 자아상의 심리상태 정도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본 논문에 이용된 자료는 2008년 11월1일부터 2009년 2월20일까지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를 허락한 서울시에 거주하는 55세 이상의 은퇴자 클럽, 노인대학, 대학부설교회 노인대학에서 55세 이상 남녀 고령자 181명을 대상으로 구체화된 설문지를 통하여 직접 면접을 실

시하였다. 본 논문은 수집된 181부 중 응답이 부적절한 38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43부를 분석하였다.

기존의 연구에서 보면 성별, 교육수준, 결혼상태, 경제수준, 배우자유무, 종교, 사회참여, 자녀와의 유대관계, 성역할 정체감 등이 노인들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요인이

표 2 . 조사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성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Research Subjects

변인	구분	N (%)	우울감		고독 감		자아존중감	
			M (SD)	F (sig)	M (SD)	F (sig)	M (SD)	F (sig)
성별	남	93 (65.0)	2.727 (0.518)	0.081 (0.777)	2.580 (0.751)	0.867 (0.353)	3.430 (0.614)	0.870 (0.353)
	녀	50 (35.0)	2.747 (0.533)		2.827 (0.826)		3.496 (0.674)	
연령	55-60세미만	38 (26.5)	2.701 (0.474)	1.418 (0.245)	2.487 (0.705)	1.407 (0.531)	3.456 (0.572)	0.553 (0.576)
	60-65세	65 (45.5)	2.701 (0.518)		2.585 (0.793)		3.489 (0.636)	
	66세 이상	40 (28.0)	2.827 (0.571)		2.700 (0.812)		3.392 (0.694)	
종교	있다	87 (60.8)	2.748 (0.542)	1.117 (0.761)	2.583 (0.774)	0.224 (0.885)	3.479 (0.636)	0.002 (0.544)
	없다	56 (39.2)	2.721 (0.493)		2.603 (0.784)		3.413 (0.635)	
교육 수준	중학교이하	53 (37.1)	2.718 (0.521)	0.573 (0.565)	2.571 (0.773)	0.796 (0.453)	3.398 (0.720)	0.554 (0.576)
	고등학교	38 (26.6)	2.768 (0.543)		2.684 (0.838)		3.485 (0.533)	
	전문대이상	52 (36.3)	2.734 (0.516)		2.543 (0.734)		3.485 (0.616)	
결혼 상태	배우자동거	80 (55.9)	2.755 (0.578)	0.469 (0.495)	2.594 (0.810)	0.084 (0.773)	3.473 (0.644)	0.400 (0.528)
	사별	37 (25.9)	2.776 (0.443)		2.655 (0.802)		3.480 (0.588)	
	이혼별 거미혼	26 (18.2)	2.629 (0.441)		2.490 (0.630)		3.350 (0.679)	
한달 수입	50만원-90만원미만	44 (30.8)	2.725 (0.533)	0.109 (0.742)	2.562 (0.767)	0.274 (0.602)	3.412 (0.591)	0.853 (0.357)
	90만원이상	99 (69.2)	2.743 (0.520)		2.604 (0.782)		3.471 (0.654)	
건강 상태	건강하다	80 (55.9)	2.737 (0.517)	0.288 (0.592)	2.612 (0.763)	0.039 (0.844)	3.508 (0.627)	2.702 (0.124)
	보통이다	63 (44.1)	2.717 (0.528)		2.647 (0.806)		3.451 (0.646)	
	나쁜편이다.	5 (3.5)	2.745 (0.654)		2.577 (0.762)		3.425 (0.749)	
동거 가족	배우자동거	56 (39.2)	2.744 (0.544)	0.209 (0.811)	2.612 (0.795)	0.441 (0.644)	3.508 (0.563)	0.245 (0.783)
	독거	35 (24.5)	2.717 (0.504)		2.579 (0.742)		3.425 (0.649)	
	자녀 동거	52 (36.3)	2.745 (0.519)		2.577 (0.790)		3.412 (0.701)	
자녀 연락 빈도	가끔 한다	77 (53.8)	2.744 (0.518)	0.200 (0.655)	2.581 (0.766)	0.229 (0.633)	3.442 (0.640)	0.258 (0.612)
	자주연락한다	66 (46.2)	2.730 (0.533)		2.602 (0.792)		3.467 (0.632)	

라고 제시 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가설 검증 전에 본 연구 설문대상자들이 이러한 요인들에 의해 심리적 안정감에 차이가 있는가를 먼저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각 요인별로 그룹을 설정하고 그룹간에 고독감과, 우울, 그리고 자아존중감에 차이가 나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ANOVA 검증을 실시하였다. 검증 결과, 본 연구의 표본은 성별, 연령, 종교, 교육수준, 결혼상태, 동거가족여부, 건강상태, 한달수입, 자녀연락빈도에 따른 고독감, 우울감, 자아존중감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자료의 신뢰성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내적 일관성 측정방식을 채택하였다. 측정 항목간의 내적 일관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Cronbach's 알파계수를 이용하였다. 일반적으로 알파값이 0.7을 넘으면 신뢰성이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평가된다. 본 연구의 측정도구의 신뢰성 검증 결과는 아래 표 3에서 보듯이 최하 0.871에서 0.934까지의 값을 나타내므로 전반적으로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된다.

표 3. 신뢰도분석 및 요인분석
Table 3. Analysis of Reliability and Causes

구성개념	문항	성분			(Cronbach 알파 계수)	문항 수				
		1	2	3						
심리적 안정감	우울감	우울.3	.733	-.327	-.233	.871	11			
		우울.4	.624	-.236	-.177					
		우울.5	.667	.094	-.278					
		우울.6	.591	-.240	-.189					
		우울.7	.554	-.275	-.155					
		우울.8	.580	-.403	-.171					
		우울.9	.558	-.041	-.183					
		우울.10	.615	-.223	-.138					
		우울.12	.531	-.333	-.011					
		우울.13	.517	-.030	-.072					
		우울.14	.608	.092	-.164					
		자아 존중감	자존.1	-.561	.589			.079	.896	9
			자존.2	-.060	.687			.339		
			자존.3	-.236	.623			.007		
자존.4	-.452		.628	.105						
자존.5	-.023		.755	.346						
자존.7	-.372		.564	.099						
자존.8	-.365		.621	.302						
자존.9	-.413		.597	.212						
자존.10	-.051		.702	.307						
고독감	고독.1		.241	-.267	.710	.934	4			
	고독.2	.231	-.394	.754						
	고독.3	.241	-.329	.760						

본 연구에서 탐색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을 위해 주성분분석(principle Component analysis)을 이용하였고 베리맥스(Varimax) 회전 방법을 적용하였다. 요인 추출의 평가기준은 고유값(Eigen value) 1이상, 요

인 적재값 0.5이상 하였다. 요인 분석 결과는 표 3과 같으며, 이 과정에서 우울감의 각 3문항 자아존중감의 1문항이 제거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SPSS 13을 사용하여 집단간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연구가설 1에 검증 결과를 보여준다. 우울감은 유선인터넷을 사용하는 그룹이 유선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 그룹이 낮았으며 두 그룹 사이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t=-3.036, p=.006$). 고독감 또한 유선인터넷을 사용하는 그룹이 유선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 그룹보다 낮았으며 두 그룹 사이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t=-4.202, p=.000$). 자아존중감은 유선인터넷을 사용하는 그룹이 유선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 그룹보다 자아존중감이 높았으며 두 그룹 사이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t=5.291, p=.000$). 이로서 가설 1은 채택되었다.

한편, 가설 2의 검증결과는 모바일기기를 사용하는 그룹이 모바일기기를 사용하지 않는 그룹보다 우울감과($t=-2.861, p=.005$) 고독감이($t=-3.984, p=.000$) 유의미하게 낮았다. 한편 자아존중감은 모바일기기를 사용하는 그룹이 비사용 그룹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았다 ($t=5.145, p=.000$). 따라서 가설 2는 채택되었다.

가설 3을 검증하기 위하여 고령자의 인터넷 기술 사용 수준에 따른 그룹 구분은 고령자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메일 및 정보검색을 사용하는 그룹 (사용수준이 낮은 그룹)과 채팅, 인터넷청약, 인터넷뱅킹, 인터넷쇼핑, 텔레뱅킹, 오락 등의 그 이외의 여러 가지 기능을 사용하는 그룹(사용수준이 높은 그룹)으로 나누어서 비교 검증하였다. 검증결과는 사용수준이 높은 그룹은 낮은 그룹에 비해 우울감($t=4.261, p=.000$).과 고독감($t=3.562, p=0.001$)이 유의미하게 낮고 자아존중감은 높은것으로 나타났다 ($t= -2.278, p=0.025$). 따라서 가설 3은 채택되었다. 한편, 가설 4를 검증하기 위해 모바일기기를 사용하는 그룹 중 음성통화만 하는 그룹과 그 외의 SMS(문자서비스), 전화번호부저장, 모바일뱅킹, 홈쇼핑, TV시청, 이메일, 동영상, 오락 등 여러 가지 기능의 숙련도를 요하는 그룹으로 나누어 비교하여 t분석을 실시하였다. 검증결과는 사용 수준이 높은 그룹은 낮은 그룹에 비해 우울감($t=4.369, p=.000$)과 고독감($t=3.700, p=.000$)이 낮고 자아존중감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 -0.663, p=0.000$). 따라서 가설 4는 채택되었다. 표 4에서 보는 것과 같이 가설 검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4. 가설 검증결과 요약

Table 4. Analysis of Reliability and Causes

가설	t-값 (p-값)	결과
가설 1: 심리적인 안정감에 있어 유선인터넷사용 그룹 대 비사용 그룹 비교		채택
가설 1-1: 유선인터넷 사용그룹 대 비사용 그룹의 우울감 비교	-3.036(0.006)	채택
가설 1-2: 유선인터넷 사용그룹 대 비사용 그룹 고독감 비교	-4.202(0.000)	채택
가설 1-3: 유선인터넷사용그룹 대 비사용 그룹 자아존중감 비교	5.291(0.000)	채택
가설 2: 심리적인 안정감에 있어 모바일기기를 사용하는 그룹 대 비사용 그룹비교		채택
가설 2-1: 모바일기기 사용그룹 대 비사용 그룹 우울 비교	-2.861(0.005)	채택
가설 2-2: 모바일기기 사용그룹 대 비사용 그룹 고독감 비교	-3.984(0.000)	채택
가설 2-3: 모바일기기 사용그룹 대 비사용 그룹 자아존중감 비교	5.145(0.000)	채택
가설 3: 심리적 안정감에 있어 유선 인터넷 사용수준에 따른 상위그룹 대 하위그룹 비교		채택
가설 3-1: 유선인터넷 사용 수준의 상위 그룹 대 하위그룹 우울감 비교	4.261 (.000)	채택
가설 3-2: 유선인터넷 사용 수준의 상위 그룹 대 하위그룹 고독감 비교	3.562 (.001)	채택
가설 3-3: 유선인터넷 사용 수준의 상위 그룹 대 하위그룹 자아존중감 비교	-2.278(.025)	채택
가설4: 심리적 안정감에 있어 모바일기기 사용수준에 따른 상위그룹 대 하위그룹 비교		채택
가설 4-1: 모바일기기 사용수준의 상위그룹 대 하위그룹 우울감 비교	4.369 (.000)	채택
가설 4-2: 모바일기기 사용수준의 상위그룹 대 하위그룹 고독감 비교	3.700 (.000)	채택
가설 4-3: 모바일기기 사용수준의 상위그룹 대 하위그룹 자아존중감 비교	-3.663 (.001)	채택

IV. 실증 분석 및 분석 결과 논의

가설 검증결과 본 연구는 정보통신기기의 사용여부 및 숙련도가 고령자들의 심리적 안정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논의점을 제시하여 준다. 연구가설1과 연구가설2의 검증한 결과, 인터넷과 모바일기기를 사용하는 노인들은 인터넷과 모바일기기를 사용하지 않은 고령자보다 심리적 안정감이 높았다. 연구가설3과 연구가설4의 검증한 결과는 인터넷 및 모바일기기를 잘 활용하는 고령자는 인터넷 및 모바일기기를 활용 하지 못하는 고령자보다 심리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정보통신기기의 사용여부와 활용에 대한 보편적인 접근성이 고령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정보통신기기 및 신기술을 잘 사용하는 고령자는 정보화를 활용하려는 의지가 매우 높고 생활면에서도 잘 적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결과는 정보통신기기를 효과적인 사용이 커

뮤니티의 상호작용과, 커뮤니케이션을 강화시키고 이로써 노인들의 심리적 안정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와 일치 한다. 뿐만 아니라 본논문에서는 퍼지규칙은 일반적으로 IF-THEN 형식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퍼지추론(fuzzy inference)이란 어떤 주어진 규칙으로부터 새로운 관계나 사실을 유추해 나가는 일련의 과정이다.

$$R^1 : \text{ IF } x \text{ is } A_1 \text{ AND } y \text{ is } B_1, \text{ THEN } z \text{ is } C_1$$

$$\text{OR } R^2 : \text{ IF } x \text{ is } A_2 \text{ AND } y \text{ is } B_2, \text{ THEN } z \text{ is } C_2$$

.....

$$\text{OR } R^n : \text{ IF } x \text{ is } A_n \text{ AND } y \text{ is } B_n, \text{ THEN } z \text{ is } C_n$$

$$\text{Conclusion} : z \text{ is } C$$

표 5. 기기 사용 수준에 따른 감성판단

Table 5. Sensitivity decision depending on the mobile device skill level

PCU GOOD		PCUH	PCUM	PCUL
T P S H	BTSH	B	M	M
	BTSM	B	M	S
	BTSL	M	S	S
T P S M	BTSH	B	M	M
	BTSM	M	M	S
	BTSL	S	S	S
T P S L	BTSH	B	M	S
	BTSM	M	M	S
	BTSL	S	S	S

TPSH : 모바일기기 사용정도 HIGH
 TPSH : 모바일기기 사용정도 MED
 TPSH : 모바일기기 사용정도 LOW
 PCUH : 우울감 HIGH
 PCUM : 우울감 MED
 PCUL : 우울감 LOW

표 5에서는 모바일기기 사용정도 판단시스템을 통해서, 신체조건이 불안하거나, 자아존중감 우울증, 고독감에 많은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위해서 건강상태, 신체조건, 심리조건 성별을 고려하여 보다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도록 27개

규칙을 사용해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했다

표 6. 감성조건을 고려한 최종판단

Table 6. Final Decision considering sensitivity condition

Fuzzy 입력 데이터			예상 판단 집단	
TWT 심리조건	TPR 신체조건	TSP 건강	A 그룹	B 그룹
Big	Big	Big	Big	Big
Big	Med	Med	Med	Big
Big	Med	Small	Big	Big
Med	Med	Med	Med	Med
Med	Med	Small	Big	Med
Med	Med	Big	Small	Med
Small	Big	Big	Small	Small
Small	Big	Med	Med	Small
Small	Big	Small	Big	Small

```

void liver_error() /* 감성조건이 비정상인 상태 */
{
    char buf[4000];
    gettext(2,5,79,23,buf);
    window(2,5,79,23);
    clrscr();
    window(1,1,80,25);
    box(4,6,77,21,1,0x1b,1);
    window(5,7,76,20);
    clrscr();
    textcolor(15);
    xy_puts(5,3," 점검 결과 ");
    xy_puts(5,6," 우울증 조건이 변경 되었습니다.");
    xy_puts(5,9," 우울증조건이 비정상 상태입니다. ");
    xy_puts(10,14," .....아무키나 누르세요..... ");
    getch();
    clrscr();
    textattr(0x1f);
    window(1,1,80,25);
    puttext(2,5,79,23,buf);
}

void engine_normal() /* 감성조건이 정상인 상태 */
{
    char buf[4000];
    gettext(2,5,79,23,buf);
    window(2,5,79,23);
    clrscr();
    window(1,1,80,25);
    box(4,6,77,21,1,0x1b,1);
    window(5,7,76,20);
    clrscr();
    textcolor(15);
    xy_puts(5,3," 점검 결과 ");
    xy_puts(5,6," 우울증 판단조건이 동일합니다. ");
    xy_puts(5,8," 당신의 우울증 조건은 정상입니다. ");
    xy_puts(10,14," .....아무키나 누르세요..... ");
    getch();
    clrscr();
    textattr(0x1f);
    window(1,1,80,25);
    puttext(2,5,79,23,buf);
}
    
```

본 연구는 정보통신기기의 사용이 고령자의 심리적 안정감과 관계가 있는지 실증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유선인터넷과 모바일기기를 사용하는 고령자는 사용하지 않는 고령자 보다, 또한 정보통신기기의 사용 수준이 높은 그룹이 낮은 그룹보다 심리적으로 안정되어 있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고령자층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모바일기기와 인터넷 기술서비스를 세분화하여 실증함으로써 본 연구 결과는 기존 연구에 비해 현실성 및 신뢰성이 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노인문제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우울감, 고독감, 자아존중감을 심리적 안정감을 측정하는 변인으로 설정하였지만, 심리적 안정감의 변인 또한 전체적인 연구 목적 및 상황에 따라 조절될 수 있다. 한 예로 정보통신기기 사용에 따른 심리적 안정감의 측정 변수는 사회보장제도에 따른 심리적 안정감에 비해 그 범위(scope)가 매우 좁을 수 있다. 하지만 정보통신기기 사용자들의 심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관계로 변수 설정에 어려움이 많았고 특정변수를 제한적으로 선정하는 축소주의(reductionism)의 논란이 있을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단순한 고령자의 심리적인 안정감에 대한 연구 결과만을 바탕으로 하지 않고 정보통신기기의 영향력에 대한 심도 깊은 고찰을 통하여 종합적인 연구 모형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할것으로 사료된다.

참 고 문 헌

- [1] 강신원,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한 정책방향과 과제 연구,”사회정책 총론, 12권 2호,193-216. 2000.
- [2] 김명자, “무용수들의 신체적 지각과 신념 자기가치 및 심리적안정감에 미치는 영향,” 단국대학교대학원 박사논문,2006.
- [3] 김수영, “노인을 위한 인터넷정보활용 활성화방안” 노인복지연구, 9권 1호, 61-94, 2000.
- [4] 김영석,디지털미디어와 사회, 나남출판사, 2000.
- [5] 김재휘,김지호,신상화, “노인들의 인터넷 이용에 관한 연구,”사회과학연구, 14집 67-91, 2002.
- [6] 변영신, 김영주, “고령자의 생활체육참여와 자아존중감, 우울감, 고독감과과의 관계,” 한국체육 학회지, 7권, 1호, 159-165, 1988.
- [7] 심영, “정보사회의 노인 소비자를 위한 생산적 복

V. 결 론

지향의 소비자 교육,”소비자학연구, 16권 1호, 151-157, 2005.

[8] 손석기, “노인복지에 있어서 정보화의 역할,” 노인 복지 연구9권 1호, 17-18, 2000.

[9] 송대현,윤가현, “노년기 고독감, 한국노인이 느끼는 고독감의 특성, 한국노년학, 9권(단일호),64-78, 1989.

[10] 한국인터넷진흥원, “2007년 상반기 정보화 실태 요약 보고서,” 한국인터넷 진흥원, 2007.

[11] 한국정보문화센터, “국민생활정보화 실태 및 정보화 인식 보고서”, 한국정보문화센터,2000.

※ 본 논문은 2008년도 교육과학기술부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입니다. (KRF-2008-327-H00004).

저자 소개

김수연



보건학과(석사)

- 1976년 경희대학교 작곡과 (학사)
 - 1994년 건국대학교 음악교육과 (석사)
 - 1998년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수료
 - 2000년 경희대학교행정대학원 사회복지과(석사)
 - 2001년 대구한의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학과(석사)
 - 2004년서울벤처정보대학원대학교정보경영학(박사수료)
 - 1994-2006년명지대,경희대,단국대,한서대학원등출강
 - 2000-2003년치매전문사이버네트워크(치매전문 Staff) 서울대임상연구소,(주)아이젠텍 연구비지원.
 - 2001-2003년 서울대간호대 서문자교수팀과 뇌졸중 예방프로그램개발
 - 2001년 해민병원척추과학센터 최창명소장과 프로그램개발 (KBS뉴스방영,미국미세침습척추학회논문발표)
 - 2001년-현재 노인건강증진프로그램연구소 소장
 - 2002-2004년 한국대체의학회,일본아로마협회(오감요법)
 - 2004-2006 대전보건대학원 겸임교수
 - 2003-2006 포천중문의과대학 보건대학원 외래교수
 - 2004-현재 서울대간호대학원,연세간호대학원 등 특강
 - 2005년 농업기반공사-농촌형노인복지조성 전문위원
 - 2006-현재 한국노인교육문화협회장
 - 2008-현재 큐에스골드클럽 대표이사
 - 2008-현재 하나투어 자문위원
- <관심분야>: Ubiquitous networking, 시니어산업

정창덕



구원.

- 1985년 일본와세다대학/단국대전기공학과(학사)
 - 1991년 연세대 (석사)
 - 2001년KAIST (박사)
 - 1985.10-1986.10월 일본도시바와세다 연구원.
 - 1990년 10월~1991년 4월 미국GE연구원.
 - 2004년 3월-2005.12월 일본 동경교육대학원 객원교수역임
 - 2005년 3월~2006년 미국 indiana university연구원/객원교수역임.
 - 2005년 9월~현재 정부과학기술자문위원
 - 2006년 3월 고려대조교수
 - 2006-현재 사단법인한국유비쿼터스학회회장
 - 2006년-현재고려대 컴퓨터정보학과교수.
- <관심분야> : 유비쿼터스 시스템, 전문가시스템, 신경망, 교통 제어

채 명 신



- 1994년 U of Texas at Austin, Instructional Technology (석사)
- 2003년 U of Illinois at Chicago,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박사).
- 2004년 3월~현재 서울벤처정보대학원 조교수.

<관심분야> : e-Biz, 모바일 비즈니스, Business Process Management

홍 유 식(중신회원)



- 1984년 경희대학교 전자공학과 (학사)
- 1989년 뉴욕공과대학교 전산학과 (석사)
- 1997년 경희대학교 전자공학과 (박사)
- 1985년-1987년 대한항공(N.Y.지점 근무)
- 1989년-1990년 삼성전자 종합기술원

연구원

- 1991년-현재 상지대학교 컴퓨터공학부 교수
- 2000년-현재 한국 퍼지 및 지능시스템학회 이사
- 2004년-2008 대한 전자 공학회 ITS 분과위원장
- 2001년-2003 한국 정보과학회 편집위원
- 2001년-2003 한국 컴퓨터 교육산업학회 이사, 편집위원
- 2004-현재: 건설교통부 ITS 전문심사위원
- 2004-현재: 원주 시 인공지능신호등 심사위원
- 2005-현재: 정보처리학회 이사
- 2005-현재: 인터넷 정보학회 이사
- 2005-현재: 지능시스템학회 강원지부 회장
- 2006-현재: 인터넷 방송통신 TV학회 부회장
- 2006-현재: 대한전자공학회 컴퓨터소사이티 부회장

<관심분야>: 퍼지 시스